

唯物論과質的生活(四)

文君의反駁에答함

金永義

어느 세계가 顛倒하였다는 말인가? 세계는 언제든지 進行 中에 있는 것이 아닌가? 비록 세계 進行의 길이 屈曲은 잇다 하여도 顛倒까지 된 것인가? 萬若 宗教가 顛倒된 世界意識이면 人類의 처음부터 세계는 顛倒되었었나? 우리 基督教인은 決코들 이 現實世界를 地上 最善이라고 아니한다. 苦痛과 쓰림이 차잇슴을 안다. 사람이 만든 制度에 捕奴가 되어 不幸에 찬 現實生活을 基督教는 깃히 늦기는 바이다. 그러나 現實 그대로가 우리가 只今까지 지은 最上의 世界이다. 이 세계를 좀 더 平和化, 博愛化하기 爲하여 努力하기를 基督教는 主張한다. 이 現實世를 좀 더 天國化하는 곳에 基督教의 힘이 잇는 바이다. 文君은 말하되 『宗教는 民衆의 幻像的 苦痛의 表現이며 그것에 對한 抗辯인 것을 意味한다. 宗教는 抑壓된 生物의 嘆息이다.』라고 論하였다. 그러나 君이 宗教의 힘을 알엇든들 이러한 斷言을 引用하지 안헛슬 것이다. 宗教는 敗北者의 慰勞的 信仰이 아니다. 生的 氣運을 주는 主動力이다. 宗教는 現實의 不滿, 不平을 보고 嘆息하는데 쓰치지 안코 한 걸음 나가서 그 不平과 不滿을 암시하도록 努力하는 곳에 참 宗教가 잇는 바이다. 더욱히 文君은 말하기를 『宗教의 批判은 人間에 對한 最高 實在는 人間이라는 教義로써 마친다. 卞라서 그것은 人間을 卑賤한 隸屬된 侮賤된 存在처럼 생각게 하는 一切의 傾向을 뒤집어 엮는 無上命分으로써 맞친다.』고 하였다. 果然한가? 宗教는 人格的 自由를 認定하여 人間을 地上 至上의 生物로 主張하는 同時에 人間의 生命과 生活을 超越하나, 亦是 內的 干涉이 잇는 神을 最高의 實在로 主張하지 았나[않나]? 우리는 無上命分 畀으로 滿足하지 안는다. 無上命分을 主動식히는 原動的 本體와 調和되기까지 生的 주림과 孤寂을 늦기게 되는 바이다. 이 生的 渴望에서 宗教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겝고 여기에서 宗教는 人間 至上主義 畀이 아님을 알 수 잇다. 그러나 同時에 基督教는 사람을 卑賤한 隸屬된 侮賤된 存在처럼 認定하는 것이 아니라 神의 子息인

人格者라고 主張한다. 知識의 程度, 經濟能力의 範圍, 그리고 달은 모든 外面의 側面을 度外視하고 사람이면 누구나 다 人格的 生活을 할 能을 가졌다고 認定하여 준다. 사람은 엇더한 處地에서든지 向上 發展할 可能性이 있다고 基督教은 高唱하는 것이 안닌가?

現實生活과 宗教에 對하여 文君은 『先輩』의 말을 引用하여 宗教는 그 本質로 말하면 人間과 自然과에서 그 內容 全部를 虛脫해버린 것이며, 이 內容을 彼岸의 神이라는 幻像에 引渡해버린다.... 宗教의 第一言辭로 虛僞이다.... 人間的인 自然인 것을 超自然的, 超人間的인 것으로 되려는 虛僞가 一切 不眞理와 虛僞와의 根據이다.』라고 論하였다. 果然한가? 宗教는

이하 원본손상으로 해독불가

彼岸에 陶醉하여서 이 世上에서는 사람인 努力을 自棄한다는 말인가? 自然的 삶의 生을 判斷하고 超自然的 夢想到 살라고 宗教가 주장한다는 말인가? 基督教은 이러한 態度를 가지지 않는다. 우리의 現實生活을 捨나기는 姑捨하고 이 現實의 世上을 참으로 天國답게 革新하자고 主張하는 바이다. 宗教의 根本精神은 崇拜의 將來를 꿈꾸는 것이 아니다. 現實의 모든 制度와 活動을 좀 더 人的化 좀 더 平等化 좀 더 合理化함을 主張, 實行하는 것이다. 神은 幻像이 아니라 最高 實在이지만 우리는 神에게 모든 것을 引渡해버리지 않는다. 사람은 이미 自由意志를 가진 人格者로서 現實生活을 通하여 自己의 삶을 向上식할 것이다. 自己는 이미 現實生活에서 努力할 義務와 能力이 있음을 認한다. 그야 勿論 神은 現實을 超越한 無干涉한 最高 實在로는 認하지 않는다. 사람은 이미 自己가 가진 自由意志로서 自己의 삶을 支配하여 나아갈 것으로 認한다. 그러나 이는 決코 個人을 爲한 努力이 아니다. 宗教는 모든 人類를 兄弟親한다. 한 사람이 監獄에 있는 때까지 自己 亦是 監獄에 있음이라고 主張한다. 生産制度와 經濟生活을 捨나기는 姑捨하고 우리의 生産制度, 經濟生活을 좀 더 人的化 좀 더 平等化 좀 더 合理化하도록 革新하려는 것이다.